

# 「한국문헌목록정보」에 있어서의 문제점

## A Problems in Korean MARC on Disc

정 옥 경(Ok-Kyung Chung) \*

### 목 차

- |                        |                         |
|------------------------|-------------------------|
| 1. 서 론                 | 5. 1 동명이인의 구별방안         |
| 2. 기술부에 있어서 권차표시의 문제점  | 5. 2 주제명일람표의 작성방안       |
| 3. 권차표시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 5. 3 저자명전거 데이터베이스의 작성방안 |
| 4. 표목부에 있어서 저자명표목의 문제점 | 6. 결 론                  |
| 5. 저자명표목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                         |

### 초 록

본 논문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행한 「한국문헌목록정보」에 있어서 기술부와 표목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한국문헌목록정보」에 의하면, 간략정보와 상세정보에서 두권 이상의 다권본인 경우 서명저자사항 다음에 권차를 표시하는 한편, 이들 자료를 모두 날권별로 별도로 입력하고, 이들에 대한 복본 까지도 각각 별도로 입력한 것은 크나큰 오류이다. 또한 한글로 표기된 한사람의 저자명 하에서 漢字로 쓰인 10가지 이상의 同音異名의 저자들의 간략목록정보가 하나의 리스트에 혼합되어 열거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의 저자명표목은 첫째 한글로 표기하고, 둘째 漢字人名을 기입하고, 셋째 저작자의 전공주제명을 표시하고, 넷째 생몰년을 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제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형화된 합리적인 주제명일람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한국의 저자명에 대한 정확한 전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만 한다.

### ABSTRACT

This paper studied on problems and improvement method of description and headings in 「Korean MARC on Disc」. By Korean MARC on Disc, it seems a great mistake that in abridged and full information, give the volumes next to statement of title and author, and even input copies of them respectively in case of multi-volume books. Also, frequently the essential abridged catalog information of a homonymic authors more than 10 which are written to Chinese are enumerated under one author name in Korean, using together with only one list. It is, therefore, effective and reasonable that Korean author headings be written to Korean language at first and be followed by Chinese, and then the subject of an author and the year of birth and death of author be indicated. For that, We should make out a conventional and reasonable subject heading list in advance to maintain the unity of subject, and build a exact authority database of Korean author name according to it.

\* 시립인천전문대학 문헌정보과 교수  
접수일자 1998년 8월 28일

## 1. 서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행한 「한국문헌목록정보」의 CD-ROM에서 저자명을 통해서 목록의 간략정보와 상세정보를 살펴 보면, 기술부의 권차표시와 표목부의 저자명표목에 있어서 몇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밝히고 그에 대한 각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기술부에 있어서 권차표시의 문제점

「한국문헌목록정보」의 CD-ROM (국립중앙도서관, 1997)에서 저자명을 통해서 간략정보에 접근해 보면, 두권 이상의 다권본의 경우 각권마다 권차가 표시되어 별도로 입력되어 있고, 또한 어떤 경우는 동일한 도서의 복본이 2중 3중으로 중복해서 입력되어 있다. 하나의 예를 들면 '김영수'라는 저자명 하에서 간략정보에 접근해서 한 부분을 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이상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史記列傳은 1983년에 學園出版社에서 발행한 것은 권수표시가 1-2로 되어 있는데, 1977년에 東西文化社에서 발행한 것은 1권과 2권이 각각 별도로 입력되어 있고, 1권은 저자가 司馬遷인데 제2권은 저자가 崔仁旭으로 입력되어 있다. 한편 1995년과 96년에 신원문화사에서 발행한 것은 1권은 없고 제2권과 제3권이 각각 별도로 입력되어 있다. 또한 권차표시도 어떤 것은 아라비아 숫자로, 어떤 것은 로마

숫자로 표시되어 있다. 아마도 동일한 史記列傳인데 발행기관과 발행년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별도로 입력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1977년에 발행된 東西文化社의 것은 1, 2권이 별도로 입력되어 있다.

권차나 권수는 형태사항에 속하는 것으로서 간략정보에 있어서 서명 다음에 '권차'를 표시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다권본의 경우에는 전질의 '권책수'를 기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간략정보에서나 상세정보에서 각각의 권책별로 또는 복본까지 별도로 입력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四書五經의 경우를 보면, 1989년에 새빛문화사에서 발행한 것은 論語에서부터 春秋에 이르기까지 전질13권이 각권마다 별도로 입력되어 있고, 1991년에 동일한 출판사에서 발행한 것은 論語 上 中 下권이 각각 별도로 입력되어 있고, 春秋와 禮記 등은 역시 각권이 별도로 입력되어 있다. 또한 저자표시는 대부분 漢字로 입력되어 있는데 어떤 것은 한글로 입력되어 있고, 권차표시는 어떤 것은 아라비아 숫자로, 어떤 것은 (上) (中) (下), 어떤 것은 (상) (중) (하)로 표시되어 있다.

이상의 四書五經에 대한 상세정보와 실물을 확인한바 서명 앞에 (小說)이라는 冠題가 있는데 이 간략목록에서는 이 冠題가 생략된 것이다. 한편 전자와 동일한 새빛문화사에서 1991년에 발행한 四書五經은 역시 소설이지만 이것은 어린이를 위한 소설로서 전자와는 다르다. 그러나 간략목록만을 본다면 서명과 저자와 발행사가 동일하기 때문에 양자가 동

〈표 1〉 저자명 '김영수' 하에서의 간략정보의 일부만

순번	서명	저자	발행사항
77	史記列傳. 1 - 2	司馬遷	學園出版公社 1983
78	史記列傳. 1	司馬遷 著	東西文化社 1977
79	史記列傳. I - II	司馬遷 [著]	東亞文化社 1975
80	史記列傳. 2	司馬遷 著	신원문화사 1995
81	史記列傳. 3	司馬遷 [著]	신원문화사 1996
82	史記列傳. 2	崔仁旭	東西文化社 1977
83	사람들	김영수...[등]	열화당 1986
84	사랑하려거든 침묵하라	김영수 지음	가톨릭다이제 1993
85	四書五經 1 : 論語 1	金瑩洙 著	새빛문화사 1989
86	四書五經 2 : 論語 2	金瑩洙 著	새빛문화사 1989
87	四書五經 3 : 論語 3	金瑩洙 著	새빛문화사 1989
88	四書五經 4 : 孟子 1	金瑩洙 著	새빛문화사 1989
89	四書五經 5 : 孟子 2	金瑩洙 著	새빛문화사 1989
90	四書五經 6 : 孟子 3	金瑩洙 著	새빛문화사 1989
91	四書五經 7 : 大學,中庸,周易	金瑩洙 著	새빛문화사 1989
92	四書五經 8 : 詩經,書經	金瑩洙 著	새빛문화사 1989
93	四書五經 9 : 禮記 1	金瑩洙 著	새빛문화사 1989
94	四書五經 10 : 禮記 2	金瑩洙 著	새빛문화사 1989
95	四書五經 11 : 禮記 3	金瑩洙 著	새빛문화사 1989
96	四書五經 12 : 春秋 1	金瑩洙 著	새빛문화사 1989
97	四書五經 13 : 春秋 2	金瑩洙 著	새빛문화사 1989
98	四書五經 2 : 論語(中)	金瑩洙 著	새빛문화사 1991
99	四書五經 3 : 論語(下)	金瑩洙 著	새빛문화사 1991
100	四書五經 春秋(상) : 제환공과	김영수 지	새빛문화사 1991
101	四書五經 春秋(하) : 용과 뱀	김영수 지	새빛문화사 1991
102	四書五經 詩經,書經 : 해뜨면	김영수 지	새빛문화사 1991
103	四書五經 禮記(상) : 하늘이	김영수 지	새빛문화사 1991
104	四書五經 禮記(중) : 첫닭울면	김영수 지	새빛문화사 1991
105	四書五經 禮記(하) : 군자의도	김영수 지	새빛문화사 1991
106	四書五經 1 : 論語(上)	金瑩洙 著	새빛문화사 1991

일한 것으로 오인하기 쉽다.

이상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 원인을 살펴 보기 위해서 간략정보를 통해서 우선 史記列傳의 상세정보에 접근해 본바 다음의 〈표 2〉와 같다.

이상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세정보에서도 서명저자사항 다음에 권차(1-2)를 표시하고 형태사항에서는 전체 권책수(2책)를 기입하고 있다. 이러한현상은 두권이상의 다권본의 경우 모두 동일하다.

〈표 2〉 史記列傳에 대한 상세정보

서명 / 저자	:	史記列傳 / 司馬遷 ; 崔仁旭, 金瑩洙 [共譯解]. 1-2
발행사항	:	서울 : 學園出版社, 1983
형태사항	:	2책. 초상화, 도판 : 21cm
총서사항	:	世界思想全集 = Great books : 9-10
분류기호	:	KDC → 912.03 DDC → 951.01, 181.11

이러한 사실로 보아 KORMARC기술규칙에 그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이러한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우선 KORMARC기술규칙을 살펴 보고자 한다.

KORMARC기술규칙에서 보면 '저자표시' 다음에 이어서 '권차표시'가 있고, '권차의 기재위치'에 "권차, 회차, 연차 등은 저자표시 뒤, 판사항 앞에 마침표, 빈칸(. )을 앞세워 기술함을 원칙으로 한다"(국립중앙도서관, 1991)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ISBD를 비롯해서 AACR2R, NCR, KCR3등 어느 편목규칙에서도 서명저자사항 다음에 권차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예가 없다. 모든 편목규칙에 있어서 '권수표시'는 형태사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단행본(총서등 다권본 포함)은 단권인 경우는 페이지수를 기입하고, 두권 이상의 다권본의 경우는 권수를 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하여 KORMARC기술규칙에서도 형태사항에서 "한 출판물이 두책 이상인 경우에는 권책수를 아라비아숫자로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국립중앙도서관, 1991)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KORMARC기술규칙에서는

다권본의 경우 "저자표시 다음, 판사항 앞에" "권차, 회차, 연차 등"을 기입한다고 규정하고, 또한 형태사항에서는 '두책 이상인 경우에 권책수'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다권본의 권책수표시'가 2중으로 규정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의 것은 "권차, 회차, 연차 등"을 표시한다고 규정하고, 후자의 경우는 "다권본의 권책수"를 표시한다는 점이 서로 다를 뿐이다.

여하간 「한국문헌목록정보」에 있어서의 간략정보와 상세정보에서 두권 이상의 다권본의 경우 서명저자사항 다음에 권차를 표시하는 한편, 이들 자료를 모두 날권별로 별도로 입력하고, 이들에 대한 복본 까지도 각각 별도로 입력하는 것은 크나큰 오류이다. 이와 같은 오류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KORMARC기술규칙에 있어서 다권본의 경우 서명저자사항 다음에 "권차, 회차, 연차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 3. 권차표시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이상에서 밝힌 문제점을 개선하자면 우선 「한국문헌목록정보」의 간략정보와 상세정보에서 서명저자사항 다음에 권차표시를 삭제하고, 종합서명이 있는 다권본의 경우는 내용주기에서 각각의 권책수와 권책별 서명을 열거해야하며, 각각의 권책별로 입력하던 작업을 폐지해야 한다.

그리하여 이상에서 제시한 바를 실제로 하나의 예를 들면, 四書五經의 경우 '간략정보'와 '상세정보'를 편목하는데 있어서는 각각 다음의 <표 3>과 같이 기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 <표 3>의 예는 四書五經 13권을 한질의 전집으로 편목한 것이다. 이와 같이 史記 列傳이나 四書五經은 한질의 다권본으로서 간략정보에서나 상세정보에서도 각각 하나

의 著錄으로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을 論語, 孟子, 禮記, 春秋 등의 소단위 서명별로 편목하고 四書五經은 총서명기입 사항에 기입하는 것이 더 유용할 것이다.

한편 이상과 같이 편목하자면, 우선 KORMARC 단행본용 기술규칙에 있어서 "1.6 권차표시"와 "1.7 전집(총서)"(pp.87-99)에 관련된 규칙들을 모두 삭제해야만 한다.

### 4. 표목부에 있어서 저자명표목의 문제점

「한국문헌목록정보」에 있어서 저자명으로 간략정보에 접근하면 검색된 리스트의 서명란에는 서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열되어 있고, 저자명란에는 漢字로 쓰인 저자명과 한글로만 표기된 저자명이 일정한 원칙없이 혼

<표 3> (小説)四書五經에 대한 간략정보와 상세정보

a) 간략정보의 경우			
(小説)四書五經	전13책	金瑩洙 著	새빛문화사 1989
b) 상세정보의 경우			
서명/저자	:	(小説)四書五經 / 金瑩洙 著	
발행사항	:	서울 :	새빛문화사, 1989
형태사항	:	전13책 :	23cm
내용목차	:	1-3 論語, 4-6 孟子, 7 大學 中庸 周易, 8 詩經 書經, 9-11 禮記, 12-13 春秋	
분류번호	:	KDC → 813.6 DDC → 895.734	

국립중앙도서관

청구번호 : 813.6-김387 ㅅ-1

합되어 열거되어 있다. 하나의 예를 들면, '김영호'라는 저자명으로 간략정보에 접근해 본바, 그 중의 한 부분만 예시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이상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영

호'라는 인명으로 검색된 '서명'란에는 서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열되어 있고, 저자명 기입란에는 漢字로 쓰인 '김영호'와 한글로만 표기된 '김영호'가 일정한 원칙이 없이 혼합되어 열거되어 있고, '김영호' 이외의

<표 4> '김영호'에 대한 간략정보 리스트의 한 부분

순번	서명	저자	발행사항
5	建築設備	金英浩 著	普文堂 1993
6	경제의 현장	金榮豪 著	東泉社 1985
7	告白錄	루소	學園出版公社 1983
8	古時調와 漢詩	金永鎬 編著	三岡文化社 1992
9	골짜기의 백합	발자크 著	廷文社 1982
10	工具設計	白南柱	塔出版社 1981
11	空氣調和設備	金英浩	普文堂 1993
12	空氣調和設備	金英浩 著	普文堂 1991
13	공동체 교회 운동과 기독교 교육	김영호 지음	종로서적출판 1991
14	科學으로서의 經濟學	Kenneth E. B	乙西文化社 1973
15	관권경제 특혜경제	金榮豪 著	CPI/月刊엔터 1988
17	광고의 이해와 활용	김영호 저	대구대학교출 1997
18	교회 교육방법론	김영호 지음	종로서적 1985
19	교회교육 행정	김영호 지음	종로서적 1985
20	國稅基本法論	金榮湖 著	韓國稅政新報 1975
21	그림없는 그림책	Hans Christi	文學出版社 1974
22	近代 동아시아와 日本帝國主義	金泳鎬 編	한밭출판사 1983
23	基本日本語會話	金永浩 著	三志社 1990
24	끝나지 않은 日記	김영호 지음	대학출판사 1995
25	나의 PR법	김영호 편저	꿈이있는집 1993
27	당신의 肖像	金永鎬 著	大提閣 1993
28	대학불어작문	김영호	신아사 1992
29	덴마크의 새마을 運動	Peter Mannic	서울大學校 1974
30	獨立宣言書	김영호 편저	삼강교재개발 1988
31	獨逸公益經濟理論과 協同組合	Theo Thimeye	서울大學出版 1976
32	獨占規制法	金英鎬 著	汎論社 1987
33	돈,섹스,권력	리차드 포스	두란노서원 1989
34	동방의 등불을 다시 밝히자	金英鎬 著	뿌리出版社 1989
36	매킨토시 워크샵	김영호 지음	성안당 1997

저자명도 약 4분의 1이나 혼합되어 있다.<sup>1)</sup> 김영호 이외의 저자명이 기입되어 있는 이유는 그 자료의 주저자는 다른 사람이고, 김영호는 부차적 저자 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인의 인명에 대한 한글표기 만으로는 각각의 인명이 개별화될 수가 없고, 따라서 각 저작자의 문헌이 일정한 순서에 따라 한 자리에 정렬되지 못하고 무질서하게 분산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용자들은 검색이 불편하고 또한 그 효율성이 저하된다.

이상에서 말한 CD-ROM목록에서 한자 인명이 기술된 사항을 면밀히 살펴 보기 위해서 다시 인명표목으로 간략정보에 접근한 바 '김영호'라는 인명표목 하에서 120건의 간략정보가 검색되었는데 여기에서 한자로 쓰인 이명만을 선별해서 중복되는 동일한 인명은 모두 추려내고 각각 다른 인명만을 추출한 바 다음과 같이 12가지의 異名이 혼합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金永虎, 金永浩, 金永鎬, 金英昊, 金英浩,  
金英鎬, 金泳鎬, 金榮昊, 金榮湖, 金榮蒙,  
金榮鎬, 金瑩昊

두번째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병주'라는 인명표목 하에서 225건의 간략정보가 검색되었는데 역시 다음과 같이 각각 다른 한자로 쓰인 인명이 11가지가 혼합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李丙周, 李丙注, 李丙疇, 李丙壽, 李秉周,  
李炳柱, 李炳主, 李炳周, 李炳宙, 李炳注,  
李炳株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의 인명은 한글표기로는 동일한 이름이지만 한자로는 모두 각기 다른 이름이다. 목록의 간략정보에서는 이들의 이름을 각각 개별화해야 하는데, '김영호'나 '이병주'라는 인명표목에서는 각기 다른 12명 이상의 저자들의 간략목록정보가 하나의 리스트에 혼합되어 열거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 두사람의 경우 뿐만 아니라 金씨, 李씨, 朴씨, 尹씨, 鄭씨 등 이른바 五大姓씨에 있어서 특히 일반적으로 흔히 쓰이는 이름(몇가지 예를 들면, 영수, 영두, 영진, 영철, 영호 등; 진규, 진수, 진상, 진영, 진우, 진철, 진호 등; 병규, 병두, 병수, 병주, 병진, 병철, 병호 등 기타에도 상당히 많다.)의 경우에는 모두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姓氏는 다음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同音異姓이 상당히 많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의 저자명표목은 모두 한글표기 다음에 漢字人名을 기입해서 이에 따라 다시 체계적으로 배열해야만 각각의 저자명이 개별화 될 수 있다. 漢字의 배열순서는 이미 컴퓨터에 장착된 한글코드순에 따르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개별화된 漢字로 쓰인 저자명도 특히 앞에서 이미 말한 五大姓씨의 경우에는 同名異人이 상당히 많다. 그러므로

1) 김영호 이외의 저자명이 기입되어 있는 이유는 그 자료의 주저자는 다른 사람이고, 김영호는 부차적 저자 이기 때문이다.

〈표 5〉 한국의 同音異姓표(최덕교, 이승우, 1971)

01	강: 姜, 康, 强, 彊, 剛	20	석: 石, 昔, 碩	39	이: 李, 伊
02	경: 慶, 景	21	선: 宣, 先	40	임: 任, 林
03	구: 具, 丘, 邱	22	성: 成, 星	41	장: 張, 蔣, 章, 莊
04	국: 鞠, 國, 菊	23	소: 蘇, 邵	42	전: 田, 全, 錢
05	기: 寄, 箕	24	순: 荀, 順, 舜, 淳	43	정: 鄭, 丁, 程
06	나: 羅, 奈	25	승: 承, 昇	44	조: 趙, 曹
07	노: 盧, 魯, 路	26	시: 施, 柴	45	존: 鍾, 宗
08	단: 段, 單, 端	27	신: 申, 辛, 慎	46	주: 朱, 周, 奏
09	도: 都, 道, 陶	28	양: 梁, 楊, 襄	47	지: 池, 智
10	돈: 敦, 頓	29	여: 呂, 汝, 余	48	진: 陳, 晉, 眞
11	마: 馬, 麻	30	연: 延, 連, 燕	49	창: 昌, 倉
12	모: 牟, 毛	31	염: 廉, 閻, 濂	50	채: 蔡, 菜
13	반: 潘, 班	32	예: 芮, 藝	51	초: 楚, 肖
14	방: 方, 房, 房, 旁, 邦	33	옹: 邕, 雍	52	추: 秋, 鄒
15	범: 范, 凡	34	우: 禹, 于	53	편: 片, 扁
16	변: 邊, 采	35	원: 元, 袁	54	포: 包, 鮑
17	빈: 賓, 彬	36	위: 魏, 韋	55	하: 河, 夏
18	사: 史, 舍, 謝	37	유: 柳, 劉, 兪, 庾	56	한: 韓, 漢
19	서: 徐, 西	38	은: 殷, 恩	57	호: 扈, 胡

우리 나라의 同名異人을 구별하기 위한 합리  
적인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할 것이다.

1988, 22.17A)

Smith, John, 1900 Jan. 10-

Smith, John, 1900 Mar. 2-

## 5. 저자명표목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 5. 1 동명이인의 구별방안

AACR2R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편목규칙  
에서는 姓名 다음에 그의 생몰년을 기입하여  
동명이인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래도 동명이인이 구별되지 않는 경우  
AACR2R에서는 다음의 예와 같이 생몰년  
다음에 생년월일까지 기입하고 있다.(ALA,

또한 생몰년등이 미상일 경우는 AACR2R  
에서는 다음의 예와 같이 저자명 다음에 그  
의 지위 등을 표시하여 식별하고 있  
다.(ALA, 1988, 22.19B1)

Brown, George, Captain

Brown, George, F.I.P.S.

Brown, George, Rev.

Valmer, capitaine

Saur, Karl-Otto



Saur, Karl-Otto, Jr.

그러나 이상과 같은 방법은 목록을 작성하는 입장에서는 동명이인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되지만 일반 이용자들에게는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이용자들은 저작자들의 생몰년이나 저자의 사회적 지위를 미리 알고 있을 가능성도 없으므로 그것이 이용자의 식별요소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편 日本目錄規則에서는 다음의 예와 같이 저자명과 생몰년 다음에 저작자의 전공분야를 표시하고 있다.(일본도서관협회목록위원회, 1994)

鈴木 清(1906-教育心理學者)

鈴木 清(1906-工藝家)

이상과 같이 저자명과 생년 다음에 저작자의 전공분야를 표시하는 것은 새로운 발전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도 저자명 다음에 먼저 전공분야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생몰년을 표시하는 방법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이용자들이 저자명을 통해서 문헌을 검색하는 경우는 그 저자가 어느 전공분야의 저술을 하는 사람이나가 주요한 식별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용자가 하나의 문학작품을 찾으려고 저자명으로 접근했을 때, 그 저자명이 동명이인이 많이 있다면, 그 저자의 생몰년이나 그의 지위에 의해서 식별하기 보다는 문학작가라는 사실만 알면 그 저자를 용이하게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

작자의 전공분야 마저도 동일하다면, 전공표시 다음에 생몰년을 표시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또한 AACR2R에서는 어떤 문구나 호칭으로 이루어진 인명의 경우 그 사람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타내지 못하면 다음과 같이 괄호 속에 영어로 적절한 명칭(직업)을 추가하고 있다.(ALA, 1988, 22.11A)

River(Writer)

Taj Mahal(Musician)

이상에서 예시한 것은 어떤 문구나 호칭으로 이루어진 인명으로서 그에 대한 식별이 애매한 경우에 한한 것이지만, 특히 현대의 전문화시대에 있어서 이용자들이 하여금 同名異人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姓과 이름이 분명한 경우라도, 성명 다음에 저작자의 전공주제명이나 특정한 직업명을 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그리하여 中國編目規則에서는 다음의 예와 같이 저자명이 명확한 경우에도 저자명 다음에 그의 전공주제명을 표시하고 있다.(중국도서관학회분류편목위원회, 1995)

林明德(文學)

林明德(史學)

이상과 같이 저자명 다음에 주제명을 기입하면 이 저자들은 同名異人임이 확실하므로 주제명 다음에 구지 생몰년을 표시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그들의 전

공주제마저 동일한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가능하면 생몰년도 표시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 5. 2 주제명일람표의 작성방안

이상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동명이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저자명표목의 한글표기와 그 한자표기 다음에 주제명을 기입하자면, 표목전반에 걸쳐서 주제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적용하기 위한 정형화된 주제명일람표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공인된 '주제명표목표'가 없기 때문에 우선 이에 적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잠정적으로 간단한 '주제명일람표'를 작성하고자 한다.

### '주제명일람표'의 작성원칙

첫째 현대의 전지식분야를 인문학주제군, 사회과학주제군, 자연과학주제군, 기술과학주제군, 그리고 이상의 어느 한 주제분야에만 속하지 않고 여러 가지 분야에 관련된 이른바 '총류주제군' 등 5대 주제군으로 대별하고:

둘째 제2단계로 이들 5대 주제군을 앞에서의 순서대로 각각 주제별로 다시 구분되되 가급적 세분을 억제한다. 그 이유는 문헌분류표에서와 같이 주제를 지나치게 세분하면 주제분야가 넓은 한 저자의 저작이 한 자리에 정렬되지 못하고 여러 분야로 분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이상과 같은 원칙하에 구분된 주제들에 대하여 한글로 주제명을 표기하되 주

제명의 글자수는 최소한 두글자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네글자 까지로 한다.

이상과 같은 원칙하에 작성된 '주제명일람표'는 다음의 <표 6>와 같다.

이상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학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너무 포괄적이다. 문학을 시, 희곡, 소설, 수필 등 문학의 장르별로 세분하면, 두가지 이상의 장르에 걸친 저작자의 작품이 한 자리에 정렬되지 못하고 장르별로 분산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이 정도로 구분해도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의학분야도 내과, 외과, 신경정신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안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잠정적으로 이들을 모두 의학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물론 이 '주제명일람표'는 그 실예만을 제시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간략하게 작성된 것이므로 이를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검토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 5. 3 저자명전거 데이터베이스의 작성방안

전항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저자명표목에 있어서 첫째로 저자명을 한글로 표기하고, 둘째로 그에 대한 漢字人名을 기입하고, 셋째로 저자가 전공하는 주제명을 한글로 표시하자면, 한국의 모든 저작자에 대해서 일일이 '저자명전거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해야만 한다. 물론 목록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인명표목을 하나 하나씩 작성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 작업이 중복되거

〈표 6〉 주제 명 일 략 표

01 철학(논리학 포함)	43 경제
02 윤리	44 경영
03 종교	45 조세
04 언어학	46 회계
05 국어	47 통계
06 영어	48 민속
07 독일어	49 가정
08 불어	50 수학
09 중국어	51 물리
10 일본어	52 화학
11 기타제국어(자유기입)	53 생물
12 국문학	54 식물
13 동양고전	55 동물
14 영문학	56 광물
15 독일학	57 지구과학
16 불문학	58 해양학
17 중국문학	59 우주공학
18 일본문학	60 천문학
19 기타제문학(자유기입)	61 의학(간호학 포함)
20 연극,영화	62 치의학
21 회화	63 (한의학 포함)
22 조각	64 약학(한약학 포함)
23 건축미술	65 농학
24 음악	66 식품영양(요리법)
25 체육	67 수의학
26 역사	68 국방과학
27 지리	69 조선공학
28 사회	70 화학공학
29 심리	71 전기공학
30 사회복지	72 전자공학
31 교육	73 통신공학
32 정치	74 우주공학
33 행정	75 토목공학
34 법률	76 기계공학
35 헌법	77 자료공학
36 행정법(재정)	78 환경공학
37 형법	79 식품공학
38 민법(재산 물권 채권 상속)	80 건축공학
39 상법(회사 보험 상속)	81 문헌정보(정보학 서지학포함)
40 사법	82 컴퓨터
41 소송법	83 신문방송
42 국제법	84 박물관

나 일관성이 없어지게 되므로 오히려 혼란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명표목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자명전거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고, 만약 이 전거데이터베이스에 누락된 저자명이 출현하는 경우는 목록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여기에서는 한국의 인명표목을 위한 저자명전거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기 위한 하나의 잠정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전항에서 말한 국립중앙도서관의 CD-ROM 목록에서 인명표목으로 간략정보에 접근하여 '김영수'라는 인명표목 하에서 검색한 209건의 간략정보 중에서 다음과 같이 각각 다른 한자로 쓰인 인명을 선별하고, 그에 대한 목록의 상세정보를 근거로해서 전공분야를 조사한 다음, 이를 앞에서 제시한 '주제명일람표'에 따라 각각 해당하는 주제명을 기입한바 그 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이상의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의 인명을 한글로 표기하면 모두 동일한 인명인데 이들을 각각 한자로 쓴 이름은 同音異名이거나 혹은 同名異人이다. 이들 중에서 우선 金永秀는 두사람이 同名異人으로서 한사람은 국문학, 한사람은 수학이 전공이다. 둘째로 金永洙는 네사람이 동명이인인데 각각 건축학, 국문학, 영어, 예술을 전공하는 사람이다. 셋째로 金英洙는 세사람이 同名異人인데 한사람은 윤리, 한사람은 치과의학, 또 한사람은 회계학이 전공이다. 넷째로 金榮秀는 세사람이 동명이인인데 각각 문학, 법학, 영어학이 전공이다. 다섯째로 金瑩洙는 두사람이 동명이인인데 각각 문학, 심리학이 전공이다.

한편 '김영수'라는 인명표목 하에서 검색된 저자표시난에 한글로만 표기된 인명도 38명이나 나타났다. 그리하여 이들에 대한 漢字人名의 경우와 같이 이들 각각에 대한 목록의 상세정보를 근거로해서 전공분야를 조사한 다음, 이를 앞에서 제시한 '주제명표'에 따라 각각 해당하는 주제명을 기입한바 그

<표 7> 김영수에 대한 한자인명과각자의 주제명일람표

김영수 :	
김영수 金永秀 국문학	김영수 金瑛秀 수학
김영수 金永秀 수학	김영수 金暎洙 행정
김영수 金永洙 건축공학	김영수 金泳洙 디자인
김영수 金永洙 국문학	김영수 金榮秀 국문학
김영수 金永洙 영어	김영수 金榮秀 법학
김영수 金永洙 예술	김영수 金榮秀 영어
김영수 金永洙 국문학	김영수 金榮洙 윤리
김영수 金永壽 국문학	김영수 金瑩洙 식품학
김영수 金英洙 윤리	김영수 金瑩洙 동양고전
김영수 金英洙 치과	김영수 金瑩洙 국문학
김영수 金英洙 회계	김영수 金瑩洙 심리

결과는 다음의 <표 8>과 같다.

이상의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글로만 표기된 '김영수'도 전공이 각각 다른 사람이 15명이나 된다.

둘째로 위에서 말한 '김영수'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김영호'의 경우를 조사한 바 그 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이상의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영호'는 한글표기로는 모두 같은 이름인데 漢字로는 同音異名이거나 同名異人이다. 첫째로 金永浩는 同名異人으로서 전공분야로 구별하면 한사람은 법학전공이고 다른 한사람은 어학을 전공하는 사람이다. 둘째로 金英鎬도 한사람은 가정학전공이고 다른 한사람

은 법학을 전공하는 사람이다. 셋째로 金泳鎬는 한사람은 경제학전공자이고 다른 한사람은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사람이다. 넷째로 金榮鎬도 한사람은 건축공학전공이고 다른 한사람은 경제학전공이다. 이와 같이 '김영호'도 한자로 표기하면 각각 다른 12명의 인명이고, 이들 중에 4개의 이름은 각각 同名異人이다.

한편 '김영호'라는 인명표목 하에서 검색된 저자표시난에 한글로만 표기된 인명도 34명이나 나타났다. 그리하여 이상의 <표 8> '김영수'의 경우와 같이 조사분석하고 해당하는 주제명을 기입한바 그 결과는 다음의 <표 10>과 같다.

<표 8> 김영수에 대한 한글인명과 각자의 주제명일람표

김영수 건축	김영수 심리
김영수 동양고전	김영수 영어
김영수 교육	김영수 역사
김영수 국문학	김영수 윤리
김영수 사진	김영수 정치
김영수 사회	김영수 종교
김영수 생물	김영수 회계
김영수 세법	

<표 9> 김영호에 대한 한자인명과 각자의 주제명일람표

김영호 :	
김영호 金永虎 수학	[ 김영호 金瑛鎬 경제 김영호 金映鎬 사회복지 김영호 金泳昊 영어 김영호 金榮湖 경제 김영호 金榮豪 경제 [ 김영호 金榮鎬 건축공학 김영호 金榮鎬 경제 김영호 金榮昊 포장공학
[ 김영호 金永浩 법학	
[ 김영호 金永浩 영어	
김영호 金永鎬 국문학	
김영호 金永昊 해운	
김영호 金永浩 건축공학	
[ 김영호 金永鎬 가정학	
[ 김영호 金永鎬 법학	

〈표 10〉 김영호에 대한 한글인명과 각자의 주제명일람표

김영호 경영	김영호 영어
김영호 경제	김영호 의학
김영호 광고	김영호 일본어
김영호 국문학	김영호 정치
김영호 불어	김영호 종교
김영호 세법	김영호 컴퓨터
김영수 역사	

이상의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글로만 표기된 ‘김영호’도 전공이 각각 다른 사람이 13명이나 된다.

이상의 〈표 8과 10〉의 경우에는 이들의 한자인명이 현재로서는 알 수 없을 뿐이지 앞에서 제시한 한자인명과 대부분 중복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한글인명은 同音異名이나 同名異人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한글만으로 표기된 인명은 가능한 한 그 한자명과 생몰년을 찾아서 기입해야만 한다.

이상의 두가지 예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 전공분야가 다른 12명 이상의 同音異名과 同名異인이 서로 혼합되어 배열되어 있는데, 그 원인은 인명을 다만 한글의 가나다순으로만 배열하고, 그 다음은 서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열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저자명을 통하여 간략정보를 검색했을 때 동일저자의 저작이 일정한 순서로 나타나 있지 않고, 모두 서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문헌에 대한 상세정보를 검색하자면 同音異名이나 同名異인의 그 많은 저작들을 일일이 찾아서 자기가 필요한 자료인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하므로 많은 시

간을 낭비하게 된다. 더구나 앞으로 축적되는 문헌의 양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검색의 효율성은 점차 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한국의 저자명에 대해서는 정확한 전자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만 한다.

한국의 저자명전자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는 방법은 우선 각각의 저작자에 대해서 한글로 표기된 저자명, 한자인명, 저작자의 전공주제명(원괄호 속에), 생몰연 순으로 기입하되 이들 각 사항은 한자씩 사이를 띄워둔다. 漢字人名을 알 수 없는 저작자에 대해서는 한자인명의 자리를 비워둔다. 이에 대한 실예를 들면 다음의 〈표 11〉과 같다.

이상에서 제시한 ‘저자명전자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각 저작자체에 나타나 있는 저작자에 대한 주요한 정보와 「韓國人名大事典」(1967)’, 「現代韓國人名事典」(1967-), 근간의 「한국인명록」, 각 언론사의 인물정보DB 등을 근거로 하여 정확하게 작성해야 할 것이다.

<표 11> 한국저자명전거 데이터베이스 작성법의 예시

김영수	김영수
김영수 金永秀 (국문학) 1933-	김영수 金瑛秀 (수학)
김영수 金永秀 (수학)	김영수 金暎洙 (행정) 1959-
김영수 金永洙 (건축공학)	김영수 金泳洙 (디자인)
김영수 金永洙 (국문학)	김영수 金榮秀 (정치) 1942-
김영수 金永洙 (영어)	김영수 金榮秀 (법학) 1940-
김영수 金永洙 (회화) 1918-	김영수 金榮秀 (영어)
김영수 金永洙 (국문학) 1941-	김영수 金榮洙 (윤리) 1935-
김영수 金永壽 (국문학) 1911-79	김영수 金榮洙 (식품학)
김영수 金英洙 (윤리)	김영수 金瑩洙 (동양고전) 1917-
김영수 金英洙 (치과) 1938-	김영수 金瑩洙 (국문학)
김영수 金英洙 (회계)	김영수 金瑩洙 (심리)
김영수	김영수
김영호 金永虎 (수학)	김영호 金泳鎬 (경제) 1940-
김영호 金永浩 (법학)	김영호 金泳鎬 (사회복지) 1938-
김영호 金永浩 (영어)	김영호 金榮昊 (영어) 1934-
김영호 金永鎬 (국문학) 1945-	김영호 金榮湖 (경제)
김영호 金英昊 (해운)	김영호 金榮豪 (경제) 1944-
김영호 金英浩 (건축공학) 1944-	김영호 金榮鎬 (건축공학)
김영호 金英鎬 (가정학)	김영호 金榮鎬 (경제)
김영호 金英鎬 (법학) 1950-	김영호 金瑩昊 (포장공학)

## 6. 결론

이상에서 밝힌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한국문헌목록정보」에 있어서 간략정보와 상세정보에서 두권 이상의 다권본의 경우 서명저자사항 다음에 권차를 표시하는 한편, 이들 자료를 모두 낱권별로 별도로 입력하고, 이들에 대한 복본 까지도 각각 별도로 입력한 것은 크나큰 오류이다. 이와 같은 오류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KORMARC기술규칙에 있어서 다권본의 경우 서명저자사항 다음에 “권차, 회차, 연차 등”을 표시하도록 규

정했기 때문이다.

2) 이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자면 우선 「한국문헌목록정보」의 간략정보와 상세정보에서 서명저자사항 다음에 권차표시를 삭제하고, 종합서명이 있는 다권본의 경우는 내용주기에서 각각의 권책수와 권책별 서명을 열거해야한다. 그리고 「KORMARC 단행본용 기술규칙」에 있어서 “1.6 권차표시”와 “1.7 전집(총서)”(pp.87-99)에 관련된 규칙들을 모두 삭제해야만 한다.

3) 「한국문헌목록정보」에 있어서 한글로 표기된 한사람의 저자명 하에서 漢字로 쓰인 10가지 이상의 同音異名의 저자들의 간략목

록정보가 하나의 리스트에 혼합되어 열거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4) 그러므로 우리 나라의 저자명표목은 모두 한글표기 다음에 漢字人名을 기입하고 漢字코드순으로 다시 체계적으로 배열해야만 각각의 저자명이 개별화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개별화된 漢字로 쓰인 저자명도 同名異人이 상당히 많으므로, 우리 나라의 同名異人을 구별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강구 되어야만 한다.

5) AACR2R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편목규칙에서는 姓名 다음에 그의 생몰년을 기입하거나, 생몰년 다음에 생월일 까지 기입하거나, 생몰년 다음에 저자의 전공분야를 표시하거나, 저자의 지위 등을 표시하거나, 적절한 명칭을 추가하고 있다.

6) 그러나 편목자의 입장에서는 저자의

생몰년월일이나 지위 등이 同名異人을 구별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일반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는 저자의 생몰년월이나 사회적 지위 등은 그들의 식별요소가 될 수 없고, 다만 자기가 관심을 가지는 분야 또는 전공분야와 부합되는나가 주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저작자의 姓과 이름이 분명한 경우라도, 성명 다음에 저작자의 전공주제명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생몰년을 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7) 저자명의 한글표기와 漢字表記 다음에 전공주제명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주제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형화된 합리적인 주제명일람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한국의 저자명에 대한 정확한 전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만 한다.

## 참 고 문 헌

국립중앙도서관. 1997. 한국문헌목록정보 = Korean MARC on DISC. 1997 가을판.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_\_\_\_\_. 1991. KORMARC 단행본 용 기술규칙.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日本圖書館協會目錄委員會編. 1994. 日本目錄規則 : 1987년판 개정판. 동경 : 일본도서관협회

中國圖書館學會分類編目委員會. 1995. 中國

編目規則. 수정판. 中國圖書館學會 : 臺北 民國84.

崔德教, 李勝羽 編著. 1971. 韓國姓氏大觀. 서울 : 創造社

韓國人名大事典. 1967. 서울 : 학원사.

現代韓國人名事典: 합동년감의 별책. 1967-. 서울 : 한국연합통신사.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88. AACR2R. Chicago : ALA.